

생명의 땅, 금산 바리실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바리실 마을은 금산군 동쪽으로 발군산(480m) 주봉을 이루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햇빛이 밝게 빛을 밝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명곡"과 지형이 바리처럼 생긴데서 "바리실"이란 마을 명칭이 유래 되었다고 한다. 금산군이 깊은 내륙에 위

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산악 지역이 많은 관계로 강우량이 많아 물이 풍부 하였으며, 금강의 상류지역으로 주변의 풍경이 수려하여 이름 있는 고찰과 식생이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산으로는 서대산, 진악산, 대둔산 등이 유명하고, 고찰로는 보석사,

신안사 등이 있다. 바리실 마을은 이중 신안사와 가까이 있다.

최근 청와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바리실 마을은 “취업형” 농어촌 복합생활 공간으로 소개 되었다.

- 농업취업: 충남 금산군 제원면 바리실 마을
- 가구/인구변화: 67호/198명(02) → 72호/217명(04) → 78호/212명(05)
- 경관이 좋은 산촌마을로서 대전과 가까운 유리한 입지 여건과 타 마을에 비해 고소득 실현(주소득장목: 사과)

-04년 녹색농촌마을로 선정, 산벚꽃축제 매년 4월경 개최(관광객 2만명 유치)

참고로 보고된 농어촌 체제, 농어촌 정주유형은 아래와 같다.

【농어촌 체제】

- ① 농어촌체험관광형 :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농어촌지역을 방문하여 농사, 전통문화 등을 체험
- ② 주말전원생활형(Second House) :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에 별도의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별장으로 이용하거나 주말농장으로 운영

【농어촌 정주】

- ③ 취업형 : 도시에 거주하다가 농어업 또는

2.3차 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

- ④ 노후생활형 : 직장 은퇴 후 노후생활을 농어촌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지낼 목적으로 농어촌에 이주
- ⑤ 도시출퇴근형 : 생계수단은 도시에 있으나, 낮은 집값, 전원생활 향유 등 목적으로 농어촌에 정주 하면서 도시로 출퇴근
- ⑥ 기타형 : 각급학교, 대안학교 취학, 휴양·치료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바리실 마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바리실마을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취업형 정주 사례로 선정된 또 하나의 요인은 금산에서 제일 큰 공장인 한국타이어주식회사와의 농산형 협력체제이다. 한국타이어주식회사와 바리실마을은 자매결연하여 농산물 팔아주기, 주말농장 제공, 족구장 등 편의시설 이용하기 등 서로 협력하여 요즈음 유행하는 일사일농촌 자매결연을 일찍 만들어 갔다. 이런 점이 바로 마을에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높이 평가 받은 듯 하다.

바리실 마을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도농 자매결연을 통하여 도농교류를 2003년부터 진행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그래서 바리실마을을 자주 방문 하지만 늘 활기에 넘쳐 있다. 다른 마을과 사뭇 다르다. 마을 주민들은

생태영농 탐방



△ 향토방-숙소

언제나 무언가 만들려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 주고 있다. 2003년에는 마을 앞에 친환경 농사인 오리농법으로 농사짓기를 결의하여 녹색연합 회원들과 함께 오리입식 행사를 가졌으며, 2004년에는 농업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

마을로 지정되어 향토방 집을 건축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BS로부터 6시 내고향 프로그램으로 백년가약에 선정되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건축하였다. 2005년에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신축하였다. 이밖에도 마을에는 공동퇴비제조장, 저온저장 창고, 농산물 수집창고 등이 마련되어 있어 바리실마을은 농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바리실마을은 다른 농촌마을에서 찾을 수 없는 에너지 자립 구조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풍력발전기가 3기가 돌아가고 있다. 비록 소형 풍력발전기이지만 이 마을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 풍력발전기 3기

지황-약초 ▷



2004년에는 1대가(소형 태양광 복합 설치) 2005년에는 2대가 추가되었다. 또한 이 마을에는 태양열 온수기가 2대 설치되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마을주민들이 태양광 발전기(3KW)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현재 태양광 설치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화석연료(석유 등)의 가격 급등과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촌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경제적 부가 결국 밖으로 지불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생태적 에너지 자립은 농촌에서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에서 바리실마을의 실험은 눈여겨 볼만한 시도이다. 특히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생산, 가공, 보관, 운반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증하여 원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고려할 때, 바리실마을의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바이오매스, 소수력 까지 접근하여 에너지 생태마을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바리실마을의 생산 주 작목은 사과, 지황, 인삼, 벼 등이다.

바리실마을의 사과는 기후적 요소와 토양적 요소가 결합되어 당도가 높아 가격이 높고, 인기가 좋아 판로에 별 걱정 없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았다. 금산은 산이 많아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성장하고, 밤에는 저장하는 식물의 속성에 따라 당도가 높고, 병충해가 적다. 토양은 이 마을 퇴비제조장에서 숙성한 퇴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옥하여 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건강한 사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마을 사과는 분자사과로도 유명하다. 사과에 분자를 붙여 햇빛에 의한 분자를 새겨 넣어 도시인



◁ 노인 건강관리실

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인삼은 금산의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올해 금산은 9월22일부터 10월15일까지 24일간 인삼의 대중화를 여는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한다. 이 엑스포는 건강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각종 체험과 결합하는 행사와 문화 축제가 어울려 세계적으로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바리실마을에도 인삼밭이 있다. 인삼은 분지에서 잘 자라 금산이 인삼 생산의 적지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삼은 다년간 재배가 필요하고, 좁은 면적에 많은 수량을 심어 비교적 병충해에 약한 것이 흠이다. 최근 인삼도 친환경적 재배 노력이 시도되고 있어 기대를 가져본다. 인삼은 약리작용 효과가 많아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바리실마을은 또한 지황이란 약초가 유명하다. 지황도 인삼과 같이 뿌리를 이용하는 약초로서 뿌리 자연 그대로의 것을 생지황, 건조시킨 것을 건지황, 찌서 말린 것을 숙지황이라 한

다. 지황은 주로 보혈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벼농사는 우렁농법, 미꾸라지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농법을 시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논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사는 아니지만, 도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도정 공장을 만들어 주분형 도정을 하여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쌀을 제공하기 위해 금산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중에 있다. 이 기계가 도입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마을 주민의 소득에 기여하고, '살고 싶은 마을 바리실'이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

바리실은 이제 생산 및 보관에서 가공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 좀더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려면 필연코 가공과 유통이 뒤 따라야 한다. 그것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열정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바



△ KBS 백년가약, 농산물직거래 판매장

리실마을은 분지형 마을로서 외지인이 들어가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마을의 발전에는 박인호 대표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포용해 함께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무리 외부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의 포용과 발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외지인이 그 마을에 가서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도시와 가깝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바리실마을의 리더십은 한발 앞서는 노력과 복표로 오늘의 성공적인 바리실마을을 이루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바리실마을은 올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그 도전이 아름답다. 누구나 도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바리실마을은 계속 도전한 것이고, 그 꿈을 향해 갈 때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될 것이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마을, 그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마을이 될

것이다. 4월이면 사과꽃과 산벚꽃이, 6월이 되면 마을 앞 논에서 우렁각시와 미꾸라지, 오리가 뛰노는 바리실마을에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하는 도농 축제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농금이 익어가는 10월이면 사과축제가 열릴 것이다. 다함께 인삼막걸리를 마시며 농촌의 넉넉한 인심에 감사를 드릴 것이다. 그날이 기대된다.

연락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바리실마을
박인호 대표(011-9484-7886)